

길어지는 ‘양의 침묵’ ... 챔스필드에 ‘범’ 내려온다

**KIA 타이거즈 FA 협상
양현종에 최후통첩
나성범 오늘 도장 찍을 듯
고향팀 입단 확정 주목**



나성범

KIA 타이거즈가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KIA와 양현종이 다시 FA(자유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현종 협상을 최우선으로 뒀던 KIA는 중단했던 외부 FA 영입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KIA는 22일 “투수 양현종과 별인 FA 계약 협상이 종료됐다”며 “양현종측과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장에 양현종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이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KIA는 이날 최종안을 제시했고, 양현종 측이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4일 협상에서 답을 내지 못했던 KIA는 주말을 넘겨 22일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최종안에도 답을 듣지 못하면서 협상 종료로 발표됐다.

앞선 협상과 달리 다음 약속은 잡지 않았다. 양현종 측이 최종안을 수용할 경우나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KIA는 양현종을 빼고 2022시즌 구상에 들어간다. 최우선 과제인 외부 FA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타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KIA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NC 나성범의 ‘고향행’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그리고 사실상 KIA행을 확정했지만, 양현종측의 협상을 우선으로 하면서 나성범 영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 해왔다. 양현종 협상이 종료되면서 FA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최대어’ 나성범이 빠르면 23일 고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나성범 영입이 공식화되면서 ‘보상 선수’로 KIA 팬들의 관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나성범은 A등급 FA다. A등급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연봉 200%와 보호선수 20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 또는 직전 연도 연봉의 300%를 원 소속팀에 줘야 한다. 나성범의 올 시즌 연봉은 7억 8000만원. NC가 전자를 선택할 경우 KIA는 20인 외 선수 1명과 15억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KIA는 보상금으로 23억 4000만원을 NC에 내주게 된다. 한편 지난 14일 FA 이적이 확정된 박건우와 박해민의 보상선수 명단이 22일 확정됐다. NC에 외야수 박건우를 내준 두산은 내야수 강진성을 보상선수로 선택했다. 또 박건우의 올 시즌 연봉 4억 8000만원의 200%인 9억 6000만원도 보상금으로 받는다. 삼성은 외야수 박해민을 영입한 LG로부터 포수 김재성을 보상선수로 영입하게 된다. 김재성은 LG가 2015년 1차 지명선수로 선택한 유망주였다. 그리고 박해민이 올 시즌 3억 8000만원의 받은 만큼 LG는 삼성으로부터 보상금 7억 6000만원도 받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보영 아쉬운 탈락

정보영이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11만5000 달러 약 1억3640만원) 2회전에서 이사벨라 시니코바(불가리아)를 상대로 서비스를 넣고 있다. 정보영이 세트 스코어 0-2(1-6 0-6)로 패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콘테 토트넘 감독, 카라바오컵 8강전 앞두고 연일 극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을 이끄는 안토니오 콘테(사진) 감독이 팀의 ‘보물’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며 치켜세웠다. 22일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을 하루 앞두고 손흥민에 대해 “세계적인 선수”라고 칭찬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월드 클래스’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토트넘 부임 전 TV로 손흥민을 봤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를 감독으로서 직접 지도하면, 이 선수의 진정한 자질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20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팀 내 최다인 7골(2도움)을 넣었고, 최근 정규리그 3경기 연

속 득점으로 토트넘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20일 토트넘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딛고 약 2주 만에 치러진 리버풀과 EPL 18라운드에선 1-2로 밀리던 후반 29분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자신의 토트넘 통산 300번째 경기에서 기록한 115번째 골(67도움)이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열심히 달린다. 강하고 회복력도 갖춘 선수다.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손흥민을 ‘톱 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다. 물론 그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미 높은 레벨에 올라 있다”며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야망을 품은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황선우, 쇼트코스 자유형 100m 한국신 ... 세계선수권 6위

황선우(18·서울체고)가 쇼트코스(25m) 자유형 100m에서 한국 기록을 새로 쓰고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를 6위로 마무리했다. 황선우는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6초 34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FINA 경영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딸 때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46초 46)을 0.12초 단축했다. 황선우는 전날 예선에서 47초 31로 전체 16위로 준결승행 마차를 탄 뒤 준결승에서는 자신이 가진 한국기록과 같은 46초 46으로 5위를 차지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는 한국 기록까지 경신했으나 6위에 자리하면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막판 스피드가 폭발적인 황선우의 후반 50m 구간 기록은 24초 01로, 금메달을 탄 알레산드로 미레시(이탈리아·23초 66)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하지만 초반 50m에서 22초 33으로 7위에 처진 것이 아쉬웠다. 미레시는 45초 5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끝냈다. 이 경기로 황선우는 고교 시절 마지막 대회이자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쳤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 자유형 200m에서 1분 41초 60의 기록으로 메이저대회 첫 우승과 함께 2016년 3관왕 박태환 이후 한국 선수로는 5년 만에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수확했다. 아울러 개인혼영 100m(52초 13), 자유형 50m(27초 72), 단체전인 계영 200m(1분 28초 56)에 이어 이날 자유형 100m까지 4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황선우가 출전한 자유형 100m 경기는 우리나

라 선수단의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였다. 앞서 여자 계영 200m 예선에서는 정소은(울산광역시청), 김서영(경북도청), 한다경(전북도체육회), 유지원(경북도청) 순으로 레이스를 이어가 1분 43초 81로 11개 출전국 중 최하위에 처졌다. 대표팀 주장 백수연(광주시체육회)은 여자 평영 200m에서 2분 26초 46으로 27위에 머물렀다. 4명이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로 100m씩 해엄쳐 순위를 다투는 혼계영 400m에서도 남녀 부 모두 예선 통과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은 원영준(대전시체육회), 문재권(서귀포시청), 문승우(전주시청), 이호준(대구시청) 순으로 나서서 3분 32초 87로 13위에 그쳤다. 김서영, 백수연, 박예린(강원도청), 정소은 순으로 나선 여자 대표팀은 4분 01초 01로 10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루 베이스 2개 붙여 쓰는 ‘더블베이스’ 논의

일본 프로야구, 선수 부상 방지

일본프로야구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1루를 2개 붙여 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21일 “지난 10월 프로야구 실행위원회에서 1루에 베이스 2개를 붙여 쓰는 ‘더블베이스’를 도입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며 “‘더블베이스’를 교육리그부터 사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로 도입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해당 안건이 불발되기는 했지만, 선수 부상 방지에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일본프로야구가 추진한 ‘더블베이스’는 1루에

베이스를 붙여 쓰는 아이디어다. 1루를 그대로 두고 파울 선상에 같은 크기의 베이스를 붙여 설치한다. 타자는 파울 선상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 수비수는 원래 있는 1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줄어든다. 비록 더블베이스 도입이 불발되기는 했지만,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실행위원회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1루는 홈플레이트 다음으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큰 구역이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1루에서 충돌해 선수 생명에 지장을 받은 선수들이 많다. 만약 베이스 2개를 붙여 사용한다면 타자 주자와 수비수가 충돌할 여지는 줄어든다. /연합뉴스